

화단 및 조경용 벌개미취 재배기술

Propagation and Cultivation of *Aster koraiensis* Used for Bedding and Landscape Plant.



송 정 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과명 : 국화과(Campositae)
- ▶ 학명 : *Aster koraiensis* Nakai
- ▶ 영명 : Korean starwort
- ▶ 분류 : 다년초



▲ 그림 1. 식물원 진입로 양측의 벌개미취 개화광경

1. 종류 및 형태

별개미취는 우리나라의 특산식물 중 하나이다. 국내에 분포하는 아스타 종류가 총 19종 정도인데, 이 별개미취만큼 관상가치가 좋고 이용성이 높은 종도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이남의 산야, 특히 계곡 주변의 습기가 많으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생한다. 지금은 자생지에서 찾아보긴 힘들다. 기본종과 달리 약간 키가 적은 계통도 왜성 별개미취란 이름으로 생산 이용되고 있다.

형태적 특징으로 키는 50~80cm까지 자란다. 근경은 옆으로 뻗으며 자라고 줄기에 파진 홈과 줄이 있다. 근생엽은 개화기 때 없어진다.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며 짧은 엽병이 있는 긴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여름철에 가지나 줄기끝에서 두상화로 피며 꽃색은 연보라색이다. 꽃은 직경 4~5cm로 아스타류에서는 비교적 큰 편에 속한다. 종자는 10월경에 성숙한다.

2. 생리생태 및 이용성

종자의 발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조금씩 다르다. 발아가 잘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발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 일단 채종하여 정선할 때 염수선 등의 방법으로 종자결실이 충실한 것들을 잘 골라 파종하면 발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생육과 번성력은 워낙 강해 토질, 비옥도 등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잘 자란다. 건조에도

강하고 추위나 여름의 고온에도 강하다. 빠르면 6월부터 개화하는 것으로 보아 꽃눈의 분화 및 발달에는 장일이 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별개미취는 현재 도로변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생화 중의 하나로 많은 곳에 식재되어 있으며 그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다. 꽃 모양이 좋은데다 꽃대도 곧아 절화용(꽃꽂이용)으로도 이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3. 재배기술

가. 번식

번식은 종자번식 및 영양번식 모두 가능하다. 당년에 성묘(개화주)가 필요하면 분주로 번식하고 계획적으로 대량생산에 들어가려면 플러그트레이 등을 이용한 실생묘 생산이 유리하다. 포기나누기는 봄에 한 포기씩 나눠주거나 가을에 꽃이 진 뒤에 적당한 크기로 나눠 포트에 정식한다. 종자의 휴면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결과는 없다. 채종 후 잘 정선된 종자를 골라 락스나 벤레이트액에 소독한 뒤 파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파종시기는 종자 수확 후 바로 하거나,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른봄에 하면 된다.

나. 생육조절

도로변 조경용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건물이나 공원 주변에 집중적으로 식재하는 경우 동 행사

표. 별개미취의 적심시기 및 횡수별 개화기 변화

	무 적 심	적 심 시 기(횡수)		
		5월상순(1회)	5월상순(2회)	6월상순(1회)
개화기(월. 일)	6. 27	7. 16	7. 14	7. 18
꽃 수(개/주)	19.4	15.2	25.8	21.1

표. 벌개미취의 차광정도별 생육 및 꽃수변화 (처리 2개월 후)

차광정도 (%)	초 장 (cm)	초 폭 (cm)	꽃 수 (개/주)
무차광	24 (3.2)	12 (0.7)	9
35	27 (3.3)	21 (1.3)	11
55	31 (4.0)	19 (1.2)	9
75	39 (4.4)	20 (1.2)	10

기간동안 식물들은 만개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식재시기를 맞춤으로써 적기에 개화되도록 하지만,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식재시기만으로 개화기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심이다. 벌개미취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1, 2회 적심에 의해 개화기를 약 20일정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선의 정도별로 생육상황을 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광처리를 하여 실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즉 차광율이 높을수록 키는 약간 커지는 경향이지만 초폭이나 꽃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벌개미취는 광환경에 대한 적응성도 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시비 및 병해충 방제

벌개미취는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긴 하지만 원래 생육이 왕성해 분얼력이 좋고 다비성이다. 따라서 벌개미취 꽃길이나 화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식 전에 퇴비도 넣고 흙도 부드럽게 경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후 제대로 활착할 때까지는 복합비료 등을 약 2주 간격으로 물에 타서(하이포넥스 기준 1000배액) 엽면에 살포해 주거나 근권부에 관주해 준다. 병해충은 별 문제가 없으나 여름철 고온과습기에 탄저병이나 무름병이, 개화 전에는 진딧물이 올 수도 있으므로 미리 잘 관찰하여 예방위주로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조경수**

